

# Safety News

## 회원 등 중국산업시찰단 해외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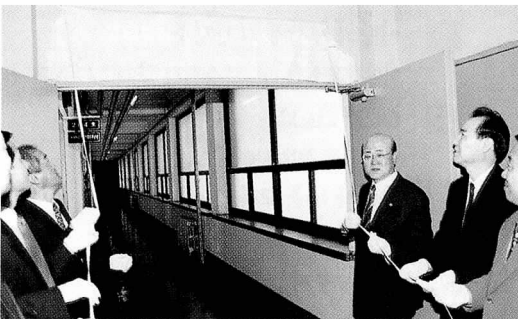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우수 회원 및 협회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업장 안전관계자 35명의 중국산업시찰단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간 중국 북경, 천진, 서안 등에 현재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견학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몸으로 느끼고 돌아 왔다. 이번 연수는 그 동안 협회사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사업장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오는 11월 6일에는 2차 시찰단을 구성하여 중국으로 떠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국산업시찰

##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현판식

지난 10월 6일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출범에 따른 현판식이 열렸다. 이번 현판식에는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이원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장, 권형신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김병호 국무총리실 총괄조정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루어졌다.

이날 이원출 단장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내 교통사고 예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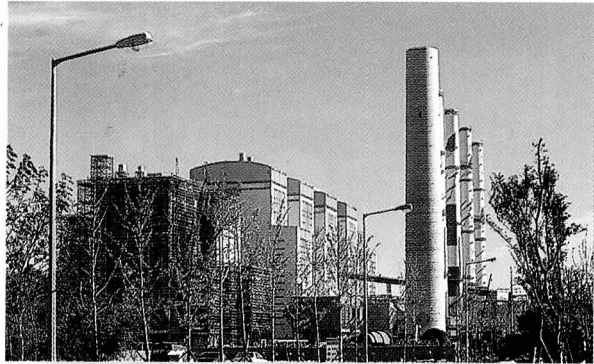


위한 ▲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 교통범칙금 인상 검토 ▲ 교통단속인력 확충 ▲ 과학적 장비에 의한 단속 ▲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자 명단공개 검토 ▲ 교통고발 신고보상금 지급 ▲ 교통사고감소 유공자 표창 ▲ 교통사고조사시 도로안전진단제 실시 ▲ 불합리한 속도규제의 개선 ▲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개선 ▲ 도로교통법령 개정 ▲ 수학여행단 교통관리 ▲ 교통안전교육·홍보활동 13개항에 대해 발표했다.

## 태안화력, 안전보건관리초일류기업으로 우뚝

한국전력공사 태안화력본부(본부장 김의규)는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관리초일류기업으로 지정 받고 지난 10월 12일 백일천 대전노동지방노동청장, 이홍지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등 내빈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을 가졌다.

태안화력은 2000년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추진전략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 안전의식 제고 활동 강화, 현장안전관리 강화, 설비안전성 확보를 전개하면서 21세기 초일류기업을 위한 안전보건 부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안전보건초일류기업 지정을 신청한 결과 높은 점수를 획득



▲ 태안화력 본부 전경

하여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관리초일류기업으로 지정 받게 되었다.

안전보건관리초일류기업 지정은 기업내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가 기업내 자율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태안화력의 안전보건관리초일류기업 지정은 전 직원의 철저한 안전보건의식과 안전경영에 바탕을 둔 안전문화 정착의 결과이다.

한편, 태안화력은 95년 3월 25일 최초 무재해운동을 개시하여 현재 무재해 5배 목표 달성을 이룩하였으며, 재해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10배 목표달성은 물론 세계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 초일류기업 현판식



▲ 태안화력 전담대 견학

# Safety News

## 3/4분기 건설안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0월 7일 한국중공업 회의실에서 건설안전협의회의 3/4분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병무 회장(현대산업개발)의 개회로 시작된 이날의 주요 안건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던 허리식, 상체식 등의 안전대를 200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그네식 안전대를 의무화 한다는 노동부 시행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허리식, 상체식과 그네식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밖에 8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건설안전기사 자격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해 산업안전자격을 소지한 자가 경력 5년 이상이면 동등한 자격 요건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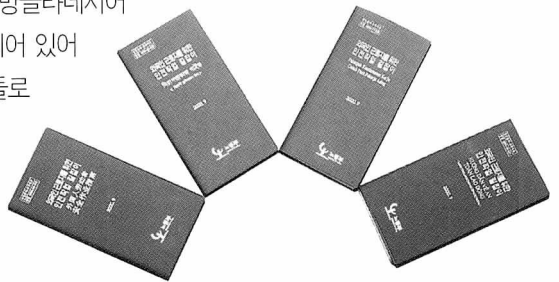
이날 총회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으며, 다음 4/4분기 정기총회 장소를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12월 8일 개최하기로 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수첩 발간

노동부는 지난 10월 12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안전수칙 등을 쉽게 풀이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길잡이』라는 안전수첩을 제작하여 중국 등 4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13,960명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이 수첩은 이번에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원단체 19개소를 통해 중국인 5,140명, 인도네시아인 3,670명, 베트남인 2,940명, 방글라데시인 2,210명 등 4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 전달된다.

위험기계·기구별 안전수칙, 안전작업방법, 각종 안전표지판, 응급처치요령, 보호구 착용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수첩은 중국어판, 인도네시아어판, 베트남어판 및 방글라데시어 판으로 되어 있으며, 각 판 모두 영어와 한글로 병행 표기되어 있어 영어권 출신 뿐만 아니라 한글을 알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로 활용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지방노동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시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 수첩을 계속 배부할 계획이다.



## 『종합적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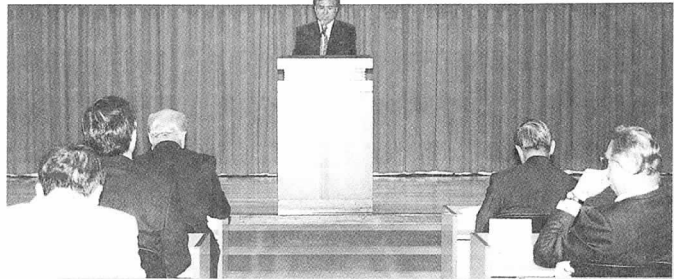
삼성화재 빌딩 3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산업안전학회의 주최로 『종합적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안실련 송자 공동대표와 한국산업안전학회 이영순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좌장에는 서울공대 응용화학부 김화용 교수가 앉았다.

주제 발표는 영국 메스세이 사이드 주 재난관리국장 Mr. Eddy Hampsom의 “영국 지역사회의 비상계획체제”를 처음으로 하여,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산업연구부 권혁면 간사가 “국내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에서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제구축”을, 독일 바이엘 아시아 태평양 안전·보건·환경 담당임원인 Dr. Chris Van Lint, 한국 R·C 협의회 김영찬 회장, 한국산업안전학회 화공분과 신창섭 위원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가졌다.

### 합적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일시: 2000. 10. 12 오후 2:30 ~ 5:30 | 주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한국산업안전학회



## 안전관련 단체 산재예방 캠페인 및 체육대회

지난 10월 7일 부산 동래 산성 남문에서는 대한 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 창원지회, 진주지회와 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안전관리대행협회 창원, 양산, 울산지부, (주)경남안전 등 안전관련 단체 약 50여명이 산재재해예방 캠페인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전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사회 안전 의식 정착·홍보를 위해 손을 잡고 한마음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대해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